

광주신세계, 47층 규모 복합시설 신축... 터미널은 지하로

광주시에 4조4천억원대 '터미널 복합개발 랜드마크' 신청서 제출
백화점·특급호텔 등...아파트 516세대·공공기여금·교통대책 쟁점
2028년 백화점·2033년 터미널·2037년 아파트 3단계 완공 계획

광주신세계가 특급호텔을 갖춘 최대 47층 규모 복합시설을 신축하고, 종합버스터미널을 지하화 하는 '터미널 복합개발 랜드마크' 조성 계획을 제시해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주식회사 광주신세계는 지난 19일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세계는 오는 2037년까지 총 사업비 4조4063억원을 투입해 서구 광천동 현 백화점과 터미널 부지를 활용한 10만 1150㎡ 면적에 백화점, 터미널, 문화, 상업, 업무, 숙박(특급호텔), 교육(국제학교 등), 의료(통합 예방의료센터 등), 주거복합시설을 갖춘 '터미널 복합개발 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3단계로 진행되는 이번 개발 사업은 1단계로 2026년 1월부터 2028년 10월까지 현 백화점(9층)을 새 단장하고, 바로 옆 유스퀘어 부지 내에 7층 규모 신관을 짓는다. 본관과 신관은 '아트리움'이라는 공간으로 잇는다. 사업이 완료되면 백화점 규모는 현 5만9174㎡에서 4배 이상 큰 24만 8949㎡로 확대된다. 또 백화점 주변 지상부에는 현 터미널 지상 녹지공간(2306㎡)의 10배가 넘는 시인 휴식형 정원인 힐링·포레스트 가든(면적 2만 5200㎡)을 조성한다.

2단계(2028년 10~2033년 8월) 사업은 백화점 신관 바로 옆으로 업무시설(47층), 특급호텔(43층), 교육의료시설(23층)을 나란히 신축한다. 업무시설 건물 1층~지하 4층에는 버스 터미널이 들어선다. 공사기간 동안 현 터미널 부지 끝쪽에 임시터미널을 마련해 운영한다.

임시터미널 부지는 3단계(2033년 8~2037년 9월) 사업 때 주거복합시설(아파트 등) 신축 부지로 활용한다. 주거복합시설은 47층 규모 3개 동 516세대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신세계측은 특히 1~3단계 사업을 통해 터미널

을 중심으로 모든 시설을 연결하고, 지하에도 복합문화 거리를 조성하는 등 모든 일상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도시 속 도시(Compact City)'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광주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광주신세계의 개발계획안을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광주시는 관련법에 따라 신청서 접수 후 60일 내에 관계기관 협의, 공동위원회(도시계획·건축) 지문 등을 거쳐 협상대상지 선정 여부(60일 이내)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주거복합시설 세대수와 공공기여금 규모, 교통대책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신세계측도 공공기여금의 민감성 등을 의식해 토지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변동 가능성을 전제로 983억원 현금납부안을 제시한 상태다.

협상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업 계획, 공공기여 계획안을 놓고 6개월간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하게 되며, 이후 주민 의견 청취, 교통·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마치고 건축 인허가 후 착공하게 된다.

앞서 광주시, 신세계, 금호그룹은 지난해 11월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복합화를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광주신세계는 금호 측으로부터 터미널 부지 전체를 4700억원에 매입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터미널 복합개발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광주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는 세계적 수준의 복합소형 공간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수 광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시민 편의성과 공공성, 투명성을 전제로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우르릉 쿵쿵쿵'...천둥·번개 1500여 차례 쳤다

광주와 전남지역이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권에 접어들던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광주시 동구 무등산 인근에서 바라본 광주 도심에 낙뢰가 내리치고 있다. 광주기상청은 20일 밤부터 21일 오전까지 전남에서는 1262회, 광주에서는 127회 낙뢰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태풍 '종다리' 큰 피해 없이 소멸 광주·전남, 다시 33~35도 폭염

열대야 현상도 지속될 듯

올해 여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찾아온 제9호 태풍 '종다리'로 인해 광주·전남에 총 1500여차례의 낙뢰가 관측됐다. 다행히 태풍은 광주·전남에 큰 피해를 끼치지 않고 한반도 상륙전 열대저기압으로 소멸됐다.

2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지난 20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광주에는 127번, 전남에는 1262번의 낙뢰가 쳤다. 또

구례 피아골 101.5mm, 광양백운산 95.5mm, 보성 59.0mm, 신안 비금 59.0mm, 여수산단 58.0mm, 광주 40.9mm 등의 비가 내렸다.

전남소방본부에는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토사 유출, 도로 장애 등 총 23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지난 20일 밤 9시 30분께 목포시 상동에서 가로수가 넘어져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오후 8시 20분께는 담양의 한 양수장 기

계실에서 낙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기계실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전봇대에서 양수장으로 이어지는 전선인 '인입선'에 낙뢰가 떨어져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태풍 종다리는 소멸됐으나 광주·전남지역에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23일 새벽까지 5~4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비가 내리면서 22일 낮 최고기온은 31~33도로 21일보다 1~2도정도 떨어지겠지만, 비가 그친 뒤 뜨거운 태양열에 습도가 더해지면서 최고체감온도 33~35도 수준의 폭염으로 이어지겠다. 23일 낮 최고기온은 32~35도로 예상되며, 광주·전남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은행권, 전세·신용대출 조인다... "갭투자 활용 차단"

주택 거래 관련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이 대출 금리를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전세자금대출까지 막기 시작했다.

성격상 가장 실수요 대출에 가까운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무분별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수요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전순 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

·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유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또 23일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p) 또 올린다.

앞서 29일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p 인상한 바 있다. 이달 7일과 16일, 그리고 21일 오늘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 최대 0.3%p, 0.5%p, 0.1%p 올렸다.

KB국민은행 역시 22일 일부 가계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를 0.2%p 또 올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 곳곳 5·18 평화 현수막에 '속수무책' ▶7면

화순의 딸 복서 임애지 "LA서도 메달 딸 것" ▶18면

팔도 핫플레이스 - 인천 자월도 ▶22면



진화, 그 이상의 새로움

The new E-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4-5001 & 광주 인중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 220 d 4M EX · 배기량:1993, 공차중량:1975, 자동9단, 복합연비:15.4(도심연비:13.6, 고속도로연비:18.4), 등급:2, 복합CO2 배출량:122
· E 300 4M EX · 배기량:1999, 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1.4(도심연비:9.9, 고속도로연비:14.6),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7
· E 300 4M AMG line · 배기량:1999, 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1.4(도심연비:9.9, 고속도로연비:14.6),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7
· E 450 4M EX · 배기량:2999, 공차중량:1970, 자동9단, 복합연비:10.5(도심연비:8.9, 고속도로연비:13.4), 등급:4, 복합CO2 배출량:1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